

오늘의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18

통 권 제 202호

발행처 _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발행일 _ 2007년 2월 25일

함즐함울

www.pcltv.org



〈사진설명〉 3부 예배시 운동장에 뿔뿔히 주차된 차들. 주일 3부 예배 때는 한번 운동장에 들어와 주차를 하면 통로까지 주차가 이루어지므로 예배가 끝날 때까지는 중간에 출차하는것이 불가능 하다.

2007 제직수련회 -예루살렘교회를 향하여...

지난 2월 10일 주일 오후 3시 30분부터 5시 30분에 걸쳐 제직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 신년 제직수련회”가 열렸다. 1부 말씀선포에서는 서울장신대 총장인 문성모 목사가 본 교회가 지향(指向)해 나가야 할 모델이 되는 교회는 예루살렘교회이며, 지양(止揚)해 나가야 할 교회는 고린도 교회라 설교하면서 참석한 모든 제직들에게 한국교회 실상을 빚대어 주님의 교회가 좀더 성숙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일갈했다.

2부에서는 제직 권사들이 준비한 풍성한 갈비탕을 먹으며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용일 집사는 “이 설교를 테이프로 만들어 모든 제직과 성도들에게 배포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으며 왕승근 집사는

지금 목사님이 한국교회 실상을 빚대 우리를 훈계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문 목사는 설교에서 한국교회는 교인의 얼굴은 아는데 이름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이름을 모르는 사람을 모든 제직은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교회의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들은 어쩌면 그렇게 자기 자리를 잘 알고 찾아가는지, 땀하면 집에 가기 바쁘고, 5분 늦은 사람은 5분 늦고, 2분 늦은 사람은 규칙적으로 2분 늦어 좌석이 바뀌지 않는다고 질책하며 먼저 중직자들이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중직자를 질책하기도 했다.

(2면에 계속..)

3부 예배 도중 출차 불가능

우리교회는 타교회에 비해 학교 운동장을 쓸 수 있어 주차여건이 매우 좋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3부 예배(11:30-12:30) 때에는 주차공간이 매우 협소한 상황이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3부 예배 때에는 운동장 통로에도 주차하게 되어 예배 중간에 출차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내용을 3부 예배 때 자가용을 가

지고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은 잘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다. 3부 예배 때는 주차하는 자가용 수에 비해 운동장 주차 공간이 협소해 부득이하게 통로에까지 주차하게 된다. 따라서 3부 예배 때는 한번 운동장에 들어와 주차를 하면 통로까지 주차가 이루어지므로 예배가 끝날 때까지는 중간에 출차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1면 사진 참조) 주차안내부는 3부 예배 때 자가용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이 3부 예배가 끝난

후에만 순서대로 출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주차안내 부원들의 안내에 잘 협조해 주길 부탁했다.

또한 아울러 주차안내부에서는 2007년 함께 섬길 남녀성도들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 많은 성도들이 주차안내를 통해 성도들을 섬기며 서로 봉사하는 기쁨과 감사를 함께 누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전했다

(기사제공 및 문의: 배익환 부장집사 011-211-5370)

예배의 현장_수요예배	2면
중보기도사역팀 모임	2면
나의신앙이야기	3면
소년부 찬양팀 · 초등부 겨울캠프	4면

로렘나무

생명의길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암8:11)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소리가 들려지는 시대이다. 그런데 정작 꼭 들어야 할 말은 많지 않다. 물이 넘치는 홍수에 오히려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힘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의 귀가 닫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도 되고 듣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는 양식이며 생수이다. 양식과 물을 마시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외치신다. 죽음의 길로 가는 자녀를 향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요6:63)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야 하는 것이다.

주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죽음의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엄혜숙 집사)



30CUP Worship Service

"물 한컵의비밀"

(막9:41)

2월 25일 3:30(PM) 대예배실
말씀: 김현령 목사



예배의 현장 (2월 7일 수요일예배)

"생명보다 귀한 사명"



16년 만에 한국의 겨울을 만끽했기 때문일까... 아프리카 선교사로 사역하다 일시 귀국한 이은용 선교사의 얼굴엔 설렘이 가득해 보였다. 고등학교 2학년, 아프리카 선교를 결심한 이래 이은용 선교사는 언제나 텐트를 짊어지고 아프리카 곳곳에 하나님의 장막을 지어왔다. 일생, 곧 한번 사는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실까, 오로지 그것을 깨닫기 위해 지금껏 달려온 것이다.

‘이별보다 귀한 주님’ 이은용 선교사가 아프리카 사역을 결심하고 비행기를 타던 날 써놓은 일기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한다. 문명이 미치지 않는 오지로 떠난다며 많은 주변인들은 걱정하고 안타까워했지만, 그는 어디에서 무얼 하든지 하늘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형통함이 있으리라 믿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케냐 마사이족의

부락, 소말리아를 비롯한 아프리카의 대지가 이 선교사에게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었던 광야 그 자체였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에게 ‘놀라운 창조의 비밀’과 ‘스스로를 포기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서울 밤하늘에는 수 천 만개의 전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둡고 후미진 곳이 분명 있기 마련. 그렇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한 개의 전등, 곧 태양 하나만으로 세상을 완벽하게 비추셨다. 이런 놀라운 깨달음을 통해 이 선교사는 광야가 위대한 학교였다고 고백했다.

지난 1월 19일, 케냐의 한 산 정상에서 2만명이 참가한 집회를 통해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이은용 선교사. 그는 기도를 한 우리 자신은 그 기억을 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고 계신다고 거듭 강조했다. 말씀 뒤,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은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했다.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사도바울.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몸소 실천하는 이은용 선교사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신다. 얼마나 많이 베풀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원했는가...

(최사라 기자)

오늘 기도



주에 불의로 이끄는 습관의 말머리를 결단하고 잘라내게 하옵소서!

중보기도 새해 첫모임 “기도자가 되라!”

중보기도 사역팀이 2월 8일(목)유치부실에서 전체 모임을 가졌다. 정영환 목사는 말씀을 통해 “벤엘 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야곱처럼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를 배워가며 바르게 기도하고 바른 지식으로 기도하며 기도에 대한 지식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기도자가 되자”라고 했다. 골방의 기도자의 삶을 살 때 중보 기도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서로 마주보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감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누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담임목사 청빙을 위해, 기도하며 다시 한 번 중보기도자의 자세와 책임감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각자 기도시간에 기도 하지만 우리가 한 음과 한 영으로 주님 안에서 만나서 함께 기도할 때 더 능력 있는 기도를 경험하며, 교제를 통하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를 누렸다.

(기사제공:송용미 집사, 중보기도 사역팀)

1면에 이어서..

2007 제직수련회 예루살렘교회를 향하여...



문성모 목사

설교중 문 목사는 교회에서 코이노니아 중요성을 강조하며 예루살렘교회는 교인이 3천명인 가운데 교제에 힘썼다고 설교하면서, 미국유학시절 흑인교회에 참석해했다가 그들의 열정적인 예배와 교제 중 열정적인 포옹 때문에 숨이 막힌 우스개 사레도 소개하고, 대치동 수요예배에 참석했을 때의 교인간의 따뜻한 눈맞춤의 은혜를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다.

계속되는 설교에서 문목사는 예루살렘 교회가 본받을 점이 여섯 가지가 더 있으며 마지막으로 성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먼저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생각의 성숙을 통해 직분이나 직위를 가진 사람일수록 낮아져야 한다고 설교했다. 바울은 회심하면서도 생각의 성숙을 이루지 못해 분란을 일으키다가 종래에 디모데에게 “나는 죄인중의 괴수요 행악자이다”라는 고백을 했는데 모든 제직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이어지기를 기원했다. 또,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행동의 성숙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자본주

의시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우리가 1년이 가도 한 번도 손이 가지 않는 옷장의 옷을 남에게 주지 못하는 구두쇠 신앙, 사과1상자 구입하고 썩은 사과하나 있으면 사기꾼 이라고 욕을 하는 전도자보다는 주는대로 받고 가장 맛있게 생긴 사과를 깎아서 절반을 노점상에게 권하는 성숙한 태도만이 비로소 참다운 전도자임을 주지시켰다.

(하태원 기자)



대표기도하는 김도묵 은퇴장로



말씀을 경청하는 제직



정성이 담긴 저녁식사를 준비한 권사회와 담소를 나누는 제직들





돋보기 안경

내가 한국에 와서 선교를 한 것이 었그제 같은데, 벌써 십오 년의 세월이 넘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 같은 못난 사람을 우리 주님이 불러주셨는지 알 수가 없다. 내가 외국을 나갈 때는 홀트 아동복지의 도움으로 미지의 세계에 있는 양부모를 찾아가는 미혼모들의 부산물들과 같이 간다. 나 또한 어린 시절을 고아원에서 자라왔고, 내 가슴에 안은 어린 생명 또한 부모에게 버림 받은 고아들이다. 누구의 죄인 줄 알 길이 없는 어린 생명을 안고, 비행기를 오를 때마다 죄인이 되는 것이다. 울어대는 아기의 모습에 모든 승객들은 눈살을 찌푸리면서 많이 귀찮아한다. 나는 그럴 때마다 비행기 복도를 걸어 다니며, '울지마 세상 사람들은 너의 슬픈 울음소리를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속삭여 준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어느새 정이 들었던 어린아이들을 양부모 품에 안겨주면서 앞으로 잘살라는 기도를 해주고는 선교사역에 뛰어든다.

나의 전도대상은 밤 문화를 좋아하는 여성들이다. 그분들이 답답할 때는 나를 찾아오지만 형편이 나아지고 자리가 잡히고 나면 자기의 지나온 과거를 숨기기에 급급하여 나를 멀리한다. 주님의 일들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대우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예수님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많고, 내가 가진 것은 몸 하나 밖에 없기에 육신이라도 바치기 위해 이 일을 하는 것이다.

나는 매달 청주여자교도소에 가지만, 지난 달 만난 한 할머니 일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고, 가끔씩 그 할머니 얼굴이 떠오른다. 청주여자교도소에는 여자재소자들이 오백 명 정도 있는데, 무기징역을 받은 백발의 할머니도 있다. 나는 집회를 마치고 그 할머니와 상담을 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내가 할머니에게 '아직도 형기를 마치려면 멀었습니까?' 하고 물으니 할머니는 고개를

흔들면서 모른다고 하신다. 가는 세월을 손으로 꼽다보면, 하루도 제대로 살 수가 없을 것이다. '할머니 누가 면회 오는 사람은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 전에는 자식들과 형제들이 얼굴을 비춰더니 이제는 소식이 끊어진지 오래된다고 한다. 나는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보면서 인생의 무상함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무슨 죄를 지었기에 한번 뿐인 인생을 철창 안에서 살아야 하는가 생각을 하니 가슴이 답답해 왔다. 어느새 할머니의 눈에는 이슬이 맺히면서 묻지도 않은 말을 하기 시작한다. '선생님 저도 살아생전에 이 교도소를 나가서 살 수가 있었습니까?' 하고는 눈물을 손으로 닦으면서 한숨을 내리쉬었다. 나는 손수건을 꺼내어 할머니 눈물을 닦아드리고 할머니 등을 쓰다듬어 드렸다. '할머니 무슨 죄를 지었기에 오랫동안 감옥살이를 해야 하나요! 할머니는 한참 동안 말문을 열지 못하다가 큰 한숨을 내리쉬면서, '감옥에 갇혀서 사는 이 늙은이가 무슨 할 말이 있었습니까'마는, 생각하면 할 수록 속도 상하고 누구에게라도 속 시원히 말을 하지 않으면, 속병이 날 것 같다'는 것이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어린 딸 둘을 데리고 세상을 살아가자니 쉬운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늙은 할아버지에게 시집을 갔다고 한다. 한날은 들에서 밭일을 하고 집에 들어와 보니, 어린 딸 둘을 남편이 해하려고 하는것을 보고 그만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할머니는 그 말을 해놓고 흐느껴 우신다. '할머니 그 후로 어린 딸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내가 불들려온 뒤로 친척들이 몇 번 데리고 오더니 이제는 소식조차 없다는 것이다. 세상은 분명히 갈라지고 있다. 형제가 갈라지고, 나라가 갈라지고, 부부가 갈라지고, 교회가 갈라지고, 온통 갈라지는 것 뿐이다. 나는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할머니 우리라도 갈라지지 말아요!' 내 말을 다 듣더니 '말만이라도 고맙소' 하는 것이다. 나는 내가 쓴 책 한 권을 드리고, 지금이

라도 늦지 않았으니 예수님을 모시고 사시라고 전도를 했다. 교도소 감방에도 성경책은 여러 권이 있지만, 눈이 나빠서 보지를 못하였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교도소 선교를 한다면서 할머니의 아픔을 헤아려드리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부끄러움을 금치 못하였다. 서울에 오는 동안 나는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했다고, 회개의 기도를 하였다. 서울에 도착하는 즉시 돋보기안경을 할머니에게 부쳐드리고, 해외선교를 다시 떠났다.

해외선교를 구름처럼 돌다가 한국으로 돌아와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할머니 소식이 궁금하여 나는 곧바로 청주로 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창가로 비치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할머니도 날아다니는 파랑새처럼 훨훨 날아다니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청주교도소에 도착하여 교도소를 찾았다. 굳게 닫힌 철문 안으로 들어가 소장님을 찾았다. 소장님은 나를 보더니, '조금 일찍 오시지 왜 이제 오셨습니까?' 하는 것이다. '할머니께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 소장님은 서랍 속에서 돋보기안경을 꺼내주시면서,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 까지, 돋보기안경을 손에 꼭 쥐고 운명 하셨다고 담당교도관들이 전하더라는 것이다. 할머니가 얼마나 외롭게 사셨으면 돋보기안경을 소중히 여겼을까? 나는 교도소 문앞을 나오면서 '할머니 잘 가셨어요!' 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예수님은 할머니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다.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이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가신 것이다. 할머니는 한줌의 흙이 되어 파랑새처럼 훨훨 날아가신 것이다. '할머니 나도 예수님이 부르면 할머니 곁에 갈게요!' 나는 할머니가 반평생을 살았던 곳의 무거운 철문을 나오면서 뒤를 돌아보았다. 저 무거운 벽돌담 안에는 오늘도 돋보기안경이 필요해 눈물짓는 형제들이 있을 것이다. 나는 무거운 선교의 가방을 들고 발길을 옮겼다.

이드보라 피택권사

성령세례를 기다립니다.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 이야기가 마음에 걸렸다. 꽤나 유력한 관리인 것 같은데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요 3:3)' '물과 성령으로 거듭다니 아니하면...'이라는 것은 세례를 말하는 것일 테고, 세례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세례 받은 나는 거듭난 거겠지. 아마도 이 니고데모란 사람은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의 의미를 잘 모르는 모양이구나'

세례 받을 때 분명 내 안에 예수가 구세주 이신 것과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는 감동이 있었다. 가시적으로 물로 씻는 행위와 내 마음 속에 구원받았다는 감동, 즉 성령의 임하심이 있었으니 나는 거듭난 것이 틀림없다고 해석하고 있었으니까 말이다. 그런데 이 사람 니고데모는 나보다는 훨씬 똑똑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걸 모를까? 영어를 자세히 보니 예수님께서 물로 난다는 것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이 별개의 것이라는 얘기로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물세례를 받았다. 그럼 성령세례는? 성경 속에는 사도행전 2장에 제자들이 성령세례를 받는 장면이 있었다. 보니 이 세례를 받으면 표적이

있어야하는 것 같았다. '나는 어떤 표적이 있었나? 잘 모르겠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갔다. 6절에는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몸을 씻는 행위가 물세례라면 영은 성령으로 씻어야한다는 거였다. 즉 물세례는 성령세례의 예표적 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세례 후의 나는 세례 전의 나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다. '표적이 없는걸 보면 나는 성령세례를 못 받은 것이 분명했다. 그저 일요일이면 교회에 간다는 걸 빼면 아무 것도 내게 일어난 변화는 없었다 성경을 읽으려 하면 자꾸만 졸렸던 것, 예배 시간에도 말씀에 집중할 수 없었던 것, 애써 들어도 내 생각과 일치하지 않으면 좋은 설교가 아니었노라고 치부하던 나의 치졸한 신앙생활이 떠올랐다. 부끄러움으로 얼굴이 확 달아오르면서 다음 순간 머리가 멍 하고 가슴이 허전해왔다. 성령세례도 받지 못하고 내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고 있었다니 대단한 착각이었으며 나는 교회만 30년 다닌 가짜 그리스도인 이었다. 계속해서 성경을 보는데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고 아무 생각도 느낌도 없었다. 모든 감각이 사라져버린 것 같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내 눈에 요한이 세례를 주는 장면이 보이면서 요한복음 3

장27절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 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는 말씀이 생각났다. 나는 성령 받았다고 믿었던 게 너무나 안타깝워서 하나님께 떼라도 써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늘에서 주시면 사람이 받을 수 있지 않은가? '왜 제게는 성령세례를 주시지 않으셨나요?' 따지듯 항의하는 내게 하나님은 나의 교만을 깨닫게 해 주셨다. 회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울고 또 울었다. 눈이 지무른다는 것이 뭔지 알만해졌을 때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셨다.

김예식 피택권사



소년부찬양팀 겨울 수련회



2월 10일 토요일 오후 다섯 시, 소년부실에서 소년부 찬양팀 수련회가 있었다. 첫 시작은 찬양의 의미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가르쳐주시는 신상욱 전도사님의 성경공부로 진행되었다. 장난치고, 듣는 등 마는 등 하는 어수선한 분위기 가운데서도 아이들은 신기하리만큼 잘 알아듣고 있었다. 뒤에 저녁을 먹고 본격적인 성가대 연습을 시작했다. 소년부 성가대 총 지도를 맡고 계신 천정희교사가 네 곡의 성가곡을 연습시켰다. 너무 음이 높아서 힘든 곡들이지만 다들 목청을 높이며 따라했다.

어느 정도 연습이 마무리가 되자 곧바로 율동연습에 들어갔다. 이 시간은 특별히, 소년부 선생님들도 함께하는 시간이라서 기대되면서도 아이들이 뻘뻘한 일정진행 때문에 지쳐있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 하지만 한 두곡 연습이 진행되자 그러한 염려

는 이내 사라졌다. 아이들은 율동이 너무 유치하다고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웃고 즐거워하는 모습이었다. 교사들 또한 엉성하지만 최선을 다해 따라했다.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8곡의 율동을 배우고 마쳤다.

늦은 시간까지 아이들과 함께 연습하셨던 선생님들은 귀가하셨고, 드디어 아이들이 기대하던 시간이 돌아왔다. 아이들을 즐겁게 해준다고 영화와 비디오게임을 준비한 것이다. 그러나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게임을 즉석으로 만들어서 놀았다. 정말 어디서 솟는 것인지 모를 엄청난 에너지를 내뿜으며 뛰놀던 아이들은, 결국 밤이 늦어서야 잠자리에 들었고, 아이들이 자는 방의 보일러를 점검하느라고 신경을 곤두세우던 나도 잠자리에 누웠다. 오늘의 모든 일정을 탈 없이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사제공: 윤대운 집사, 소년부)

초등부겨울캠프



지난 2월 10일(토) 2시부터 11일(주일) 1시까지 초등부 겨울캠프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무사히 마쳤다. 이번 캠프의 주제는 올 한해 초등부 표어인 “예수님 안에 머물러 살아요.(요 15:5)”로 세우고 찬양축제, 기도회, 반별 기도회, 공동체 코너, 게임, 파워율동찬양, 반별 QT, 영화감상, 메빅예배 등을 실시했다.

97명의 친구들과 25명의 선생님들이 함께 예수님 안에 함께 뒹굴고 기뻐 뛰놀았다. 공동체 코너에서는 우리 친구들이 조별로 각 코너를 찾아가 미션을 수행하며 서로의 관계성과 협동성을 몸으로 부딪치며 배웠다. 찬양축제 시간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함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영

집의 기도와 그동안의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모습을 눈물로 고백하여 드린 후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반별 기도회를 통하여 선생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기도했다. 반별 QT를 통하여 우리 친구들이 QT하는 방법과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의 시간을 가졌으며 메빅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뛰어놀며 기쁨으로 찬양드림과 함께 말씀을 들었다. 친구들은 물론 선생님들까지 기쁨으로 뛰며 찬양하여 비록 몸은 많이 피곤하지만 ‘기분 좋은 피곤함’을 고백했다.

초등부 선생님들은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에 감사했고 초등부 역시 비교할 수 없는 평안 속에 벅찬 감격의 찬양이 흘러넘칠 기도하겠다는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기사제공: 초등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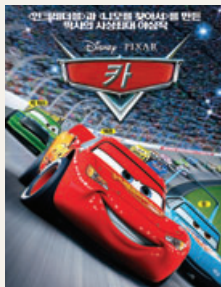


알려 드립니다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안내

1994년부터 시작 시작된 주님의 교회 호스피스 사역에 많은 교우님들을 초대합니다. 현재 12개 병원과 5곳 시설(노인, 장애인 시설 등)에서 환자가 계신 가정을 찾아가 환자와 가족의 필요를 채우며 섬기고 있습니다. 말기 암 환자 및 임종환자와 가족들의 슬픔과 고통을 사랑으로 돌보는 일과 영원한 생명의 안내자로서 복음을 전하며 위안과 안락을 베풀고 있습니다. 2007년 전반기 교육에 많은 교우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일 시 : 2007년 3월15일(목) ~5월 17일(목)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오후 5시
장 소 : 정동제일 교회 사회교육관 아펜젤라홀 (시청역 덕수궁 뒤)
신 청 : 교회사무실(20명 선착순)
교 육 비 : 8만원(주님의 교회 등록 교인은 4만원)
교육내용 : 호스피스 자원봉사 기본교육 40시간과 환자를 보다 잘 섬기기 위한 신체적 보살핌의 필요한 발마사지 교육 10시간을 포함해 총 50시간의 교육과정입니다.
※문의 : 김양자 장로(017-250-0670)



영화상영

제 목 : 카 (The Car)
장 소 : 오늘 오후 3시 30분 1층 유년부실
내 용 : 화려한 성공과 갈채를 꿈꾸는 주인공 라이트닝 맥퀸은 경주에서 성공하는 것만이 인생의 모든 것이라 생각하는 타오르는 청춘..하지만 피스톤 컵 챔피언십에서 참가하기 위해 달리던 중 경쟁과 함성과는 동떨어진 레이디에터 스프링스란 한적한 시골로 들어서게 된다...

2007 교회요람 발행

2007교회요람이 발행 되었습니다. 교우 여러분께서는 각 교구 구역장을 통해 배부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사무실에서는 요람을 배부하지 않습니다.



목회자 추천도서 시리즈 ② 정영환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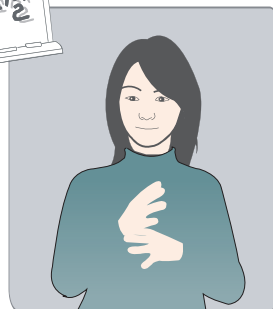
어? 성경이 읽히지네! - 생장점이 터지는 성경일독학교

미국 볼티모어 벨엘교회 이애실 사모가 쓴 이 책은 이미 두란노 성경일독세미나를 비롯한 여러 세미나와 독자들을 통해 검증된 책이다.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부터 시작하지만 끝까지 읽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둔 경험이 누구에게나 있다. 이 책에서는 하루 2시간씩 60일동안 성경을 일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서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연대기적인 흐름에 따라 읽을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또, 지루하지 않게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귀중하고 놀라운 통찰을 포함하고 있다. 2007년 새해 좀더 성경에 대해 알기 원하는 분들에게, 마음먹고 성경을 일독하기 원하는 분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적극 추천한다.



“어? 성경이 읽히지네!”
(생장점이 터지는 성경일독학교)
이애실 지음, 두란노



주소(address)란 뜻이에요

「집」 + 양손을 펴 상하로 대고 ①~⑤ 순으로 점으면
「주소」라는 뜻입니다.